# 제1강 하나님 경외 교육과 부모 공경 교육

어머니 교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밑거름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먼저 어머니 교실의 첫 강의를 '하나님 경외'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보다 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 1. 삶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우리 개인의 삶의 평안과 질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敬畏,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며,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시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건물을 건축할 때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삶의 기초를 '하나님 경외' 위에 바르게 세워놓으면 삶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 경외'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2. '하나님 경외' 교육은 우리의 '삶'으로 해야 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라는 우리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우리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들의 '하나님 경외'는 부모로부터 그저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삶에서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 사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삶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삶의 모든 행동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르침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은 부모의 삶이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경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녀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부지런한 생활, 성실한 삶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와 닮은 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라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3. 어머니! 당신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사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시 119:161)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우선 어머니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서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십시오. 모든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세워진다면 나머지 삶의 질서 또한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진정 살아있는 가르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우리 자신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4. 어머니는 본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신 4:10)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생각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강의를 들으며 공감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반성의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자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부모인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부모인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부모인 너는 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했는가)?"
"부모인 너는 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인생에 별다른 빛이 없다고 해도, 핍박과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설령, 교회에서 전도집회나 공과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울 수 있다고 해도, 부모의 삶속에서 특히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보고 배울 수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속에서는 하나님을 결코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5.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요 1:1).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며,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신 13:4)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학 1: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6.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갈 길을 가르치시고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양식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 제 3의 길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전 7:18)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는 한쪽을 붙잡았다 하여 다른 쪽을 버리지는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 25: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 33:18,19)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시 34:7)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 60: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셀라)
(시 111:5)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7.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경외'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요?**

**1)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 자신의 생각이나 몸의 욕구들을 무릎 꿇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 ,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 , 이럴 때 성경은 …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우리의 가르침은 오직 성경의 말씀이라는 기반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 30:11~14)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

**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잠 3:1)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 7:1)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전 12:13,1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참다운 경외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심의 어머니 교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며 대답하기 위해 어머니 교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보고 듣는 이 말씀, 평생 곁에 두고 읽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 이것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평생의 숙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방식, 가치의 기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분별이 어린 시절부터 오직 말씀에 좌우되고 뿌리 내리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 자녀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해설서입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의 최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도록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합니다.
평생에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끝없이 배워야 합니다.

**(신 17: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 교육의 핵심은 '말씀 교육'에 있고, '말씀 교육'의 핵심은 우리의 '말씀 공부(연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과 인간 대 인간에 관한 6가지 계명을 잇는 계명으로 5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연결 고리인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만일 이 부모 공경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을 결코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레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엡 6:2,3)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나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사람에게 명하여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축복받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의 대가로 땅에서 장수하고 범사에 잘 되는 축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1.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번성과 양육을 위하여 부모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성경대로 하면 자녀들은 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히브리 원어로 '아바'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가르치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속성이 닮은꼴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닮은꼴의 특성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행(孝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생님들과 윗사람들까지도 공경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경외'는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웃어른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 19:32)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 2. 학부모 교육의 열매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익어갑니다.
### 우리 자녀들은 들사람이 아닌, 리브가의 장막에서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의 심정을 헤아려 자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님

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엡 6: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 1)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가르칩시다.

**(골 3: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 믿음의 열매는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 23: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도 만족하시며, 부모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도 노여워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잠 10:1)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 30: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레 20:9)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 2) 자녀의 부모에 대한 예의(禮儀)를 가르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이 익혀야 하는 실제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습관'을 '부모에 대한 예의(禮儀)'로 가르치도록 합시다. 아래의 부모에 대한 예의는 우리 동양에서 매우 익숙한 것들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잘 공경한다는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래의 예의들을 가족들이 함께 익힌다면 매우 바람직한 가정 문화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① 부모님께는 꼭 높임말을 사용하게 합니다. (父子有親 : 진정한 친함은 존중과 존경에서 나옵니다.)
② 부모님 앞에서 정중한 자세로 앉도록 합니다. 부모 자신의 자세가 항상 정중해야 합니다.
③ 부모님이 식탁에서 수저를 먼저 드신 후에 자녀가 수저를 듭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식들만 먹지 않도록 합니다.
부지런히 일어나 식사 준비를 미리 마친 후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④ 맛있는 음식은 부모님께 먼저 드립니다. 부모는 먼저 맛을 보거나 먹도록 해야 합니다.
⑤ 자녀는 식사를 다 한 후라도 부모가 식사를 마치기 전이면 식탁에 앉아 부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식사 시간이 다른 중고생인 경우, 1주일에 한번 함께 식사할 때라도 지키게 합니다.)
⑥ 부모가 집을 나설 때나 돌아오실 때에는 "아버지(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 다녀 오셨습니까?"라고 공손히 인사드립니다.
⑦ 부모님이 장거리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배웅/마중을 함께 나가며 무거운 짐을 들도록 합니다.
⑧ 자녀가 집을 나서거나 돌아올 때는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서 "아버지(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 다녀 왔습니다."라고 인사드립니다.
⑨ 조부모 방문 시 직접 문안인사를 드리도록 하며 병중이시면 쾌유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게 합니다.
⑩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들께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⑪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한번은 방문하게 하고, 근무지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일을 정기적으로 도와드리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3)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습관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신만 생각하며, 자기 앞만 보고 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나는 고생해도 괜찮으니 너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면 돼! "라는 말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희생과 헌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자녀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면 자녀들이 자라서 그것을 알아주고 부모를 공경할 것 같지만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하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순진한 바람일 뿐입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도록 더욱 철저히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부모를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듯이 자녀들은 부모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들이 매주 부모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어서 자녀들이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부모의 건강, 직장에서 하는 일과 어려운 점, 부모님이 전도하는 분 등을 알려주고 사소한 것이라도 부모와 관련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모를 기도할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함께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의 가정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이지, 항상 한 쪽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교제 때마다 집안의 일들을 돕도록 일을 만들어 줌으로써 가정의 대소사에 자녀들을 직접 참여시킵니다.

함께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협력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가 되며, 부모님의 고난이 자녀의 고난이 되고, 부모님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의 생활 속에서 부모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들사람이 아닌 리브가의 장막에서 길들여진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